

동네방네

사업설계부터 창업오디션까지... '기업가 양성'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파주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을 위한 '2020년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 교육 신청자 40명을 대상으로

관내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에 위탁해 오는 9월 28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17일 시작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무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본과정이 7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구상·설계, 사회적경제 성공·실패 사례 분석, 경기도 창업오디션 기초준비 등 총 14회에 걸쳐 원격 영상강의로 진행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 전역에서 만나는 '브랜드 페스타'

소비 붐업·경기 회복 이벤트

부산시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부산만의 지역상품 판매, 소비, 관광 등의 콘텐츠를 입힌 '대한민국 동행세일&부산 브랜드 페스타'를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부산 전역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 동안, 부산시는 관광 프로모션과 문화 행사를 결합해 부산에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역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부산브랜드페스타, 신발 특별관



매진,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 등도 개최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차원에서 임시 휴관했던 목포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다.
목포시는 오는 22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로식당과 이용자가 소수인 프로그램부터 운영하고, 목욕탕이나

댄스 동아리 같은 다수 이용 프로그램은 향후 추이를 보고 재개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도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등 9개소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교육청,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경북교육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은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20년 이상 경과된 주

요 건축물 ▲재해취약시설 중 붕괴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옹벽, 절토사면 등)으로써 여름철 안전점검과 병행하며, 건축물 5,590동과 옹벽·절토사면 87개소 등 총 5,677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9일 (금)
음력 : 4월 28일

수도권 날씨 30~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5:11 | 해질 19:56

연천 18/29, 동두천 18/30, 가평 18/28, 파주 19/29, 서울 20/30, 양평 19/29, 인천 20/27, 수원 20/29, 용인 20/29, 평택 19/29, 백령도 16/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성군,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재배면적 12만㎡ 돌파 등 '경사'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지속 추진
아열대작물 시범사업 12억 지원
실증센터, 신제품 도입 등 연구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가 성공한 전남 장성군이 2016년부터 작물 재배 지원에 힘쓴 결과 5년여 만에 재배 면적이 12㎡를 돌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45농가가 12만7600㎡(3만8599평) 면적에서 애플망고, 구아바, 레드향 등 총 8개 품목의 아열대작물을 활발하게 재배하고 있다.

장성군은 고소득원인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을 위해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기관인 장성 미래농업대학이 주관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농가에 묘목과 시설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재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아열대 과일 연구회를 조직하고 제주도 견학과 현장 컨설팅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아열대작물 재배단지에서 올해 첫 수확한 애플망고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장성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열대과일인 '애플망고'를 올해 첫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타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서 아열대작물 육성에 나선 장성군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이 공모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

가 기대된다.

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신제품 도입과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이다. 실증센터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이며, 장성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연구동과 온실동, 실증·증식 포장 등을 조성한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장성에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조성되면 전국 곳곳에서 고르게 재배 중인 각종 아열대 과일과 삼채, 강황 등 아열대 채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전남은 물론, 국가의 미래 농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실증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안동시, 빅데이터로 감염병 예측모델 구축

제2급 감염병 발생 패턴 등 분석
산업기술 활용 감염병 예방·대응
총 사업비 8000만원 국비 50%

경북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0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감염병 예측 분야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우수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선정, 표준화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동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8000만 원(국비 50%)을 들여 제2급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나선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기



안동시청

초자료와 전국 감염병 데이터, 지역 주민등록인구 자료, 어린이집 현황 등 빅데이터를 기초로 결핵, 수두, 홍역 등 제2급감염병 발생 패턴과 취약계층 및 연령 등을 분석한다.

이를 예방 접종 독려와 취약지역, 관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감염병 예방과 확산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등이 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나주시 든든한 지원 덕" 귀농인 창업 성공

친환경 고구마 100톤 납품계약
아이템발굴, 창업자금 등 지원

전남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 귀농인의 성공창업을 이끌어냈다.

나주시는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대상 업체인 세지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자연이 좋은 사람들'이 최근 가공용 '친환경 토담고구마' 100t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체는 광주에 소재한 식품가공업체 현대에프엔비㈜에 연간 2억원 규모의 가공용 고구마를 납품하는 데 성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박종수 자연이 좋은사람들 감사는 "귀농이후 막대한 상황에서 그동안 나

주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귀농인의 창업 등을 돕는다.

농식품 가공·제조와 관련된 창업 아이템 발굴, 지적재산권 권리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 귀농 창업의 성공모델이 된 '자연이 좋은 사람들'은 고구마 페이스트(Paste·겉죽한 소스 형태)를 기반으로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하던 중, 함께 참



전남 나주시가 귀농창업을 지원 중인 업체인 '자연이 좋은 사람들'은 최근 농협회사법인 현대에프엔비㈜에 가공용 고구마 100t(2억원 규모)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여한 현대에프엔비 측이 관심을 갖으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지원·교육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김태수 기자